

大學圖書館建立에 있어서 配置와 模型에 關한 試案

—특히「J大學」第2 圖書館을 中心으로—

崔 貞 泰*

目 次

1. 緒 論
2. J 大學의 캠퍼스와 圖書館施設
3. 第2 圖書館의 性格
4. 配置試案
5. 模型과 諸般施設
6. 맺음말
参考文献

1. 緒 論

대학이란 학문을 연구하고 배움을 가르치는 곳이며 대학도서관은 가르침과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모아서 학문의 연구에 손색 없도록 뒷받침 해 주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심장기능으로서 모든 연구와 학습의 중심점이 되어 대학도서관이 차지한 위치나 건물의 모형이 그 대학의 심볼(symbol)적이 되어 왔음이 수백년을 이어온 동서고금의 대학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근대적인 개관에서 살펴보면 거의가 백년이 미만이고 길게는 8~9 십년에서 5~6 십년의 역사를 가졌고 보통 3~4 십년의 학교사를 가진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사는 아직 일천하여 도서관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고 아쉬움이 덜 필요찮은 가운데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후 광복이 되자 國立大學設置令에 의하여 각 도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국립대학이 설치되어 왔었는데 그 중 전북지방의 J大學도 이에 해당되며 올해가 설립한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全北大學校・圖書館學科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때 애초에 대학이 설립되고서도 도서관은 그 필요성이 등한시되어 대학이 도서관을 위한 하등의 준비도 없이 기존형 건물에 도서관건물을 끼워 맞추어져 캠퍼스 배치에 있어서 도서관을 하나의 장식보조물로 생각하여 독자적인 건물도 없이 가교사 내지 가 건물에 보잘것 없는 자료를 비치하고 또한 훈련받은 사서도 없이 십 수년간을 지탱하여 왔었다.

그 후 도서관학이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설치되고 문교부에서 大學設置基準令이 공포되어 대학도서관의 장서와 인원 그리고 시설기준에 있어 크기와 열람석이 평가대상이 되어 도서관의 건물에 대하여 대학과 사회의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가교사의 도서관 건물도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하므로 인하여 새로운 건물의 도서관이 필요하게 되고 면학 분위기의 쇠퇴를 위한 현대적인 도서관이 더욱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이 몇몇 대학이 산발적으로 독립적인 도서관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거의가 소규모 내지 재래식 시설이었다.

본격적인 현대 도서관의 신축 발단은 1975년 1월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에 캠퍼스를 종합화하므로써 중심부에 연 건평 9천여평의 방대한 도서관을 신축하고서 부터이다.

그 후부터 경향의 각 대학들은 우후죽순격으로 도서관을 신축 내지 증축하여 왔으며 "그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그런데 도서관의 건립에 있어서 멜카프 (Keyes D. Metcalf)는 그의 저서 「學術 및 研究圖書館 建築計劃」에서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장서, 직원, 열람자 및 적어도 앞으로 25년간 예상되는 성장에 준비하여야 하며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예상되는 성장에 대하여 장차의 증축을 고려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 高麗大學校圖書館, 4,424명(1978. 3 개관) / 外國語大學校圖書館, 2,700명(1978. 10. 개관) / 圓光大學校 圖書館, 3,500명(1978. 11. 개관) / 全北大學校圖書館, 2,040명(1978. 11. 개관) / 延世大學校圖書館, 5,300명(1979. 3. 개관) / 啓明大學校圖書館, 5,392명(1980. 11. 개관) / 慶北大學校圖書館, 4,380명(1982. 3. 개관 예정)등.

2) Keyes D. Metcalf.,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 (New York: Mc Graw Hill, 1965) p.304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도 이러한 충고에 과연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 예로 현재 丁大学은 1955년 이후 4백 4명의 조그마한 석조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다가 장소의 협소로 1978년 11월 현재 2천여명의 중앙도서관을 신축완공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데 만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이 건물도 다시 포화상태를 맞이하여 제 2의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축할 제 2의 도서관은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모형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멜카프는 다시 도서관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계획진행의 바른 순서는 신축도서관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건물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또 어떤 건축의 형태로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지어야 할까를 결정하여야 한다.³⁾ 고 하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고 현 상태의 J大学에 대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이외에 새로히 건립하려는 제 2도서관상을 생각해 보고 멜카프의 말대로 본 대학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다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 어떤 성격의 도서관인가? 그리고 어디에? 어떤 건축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를 살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건물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문헌을 찾아 보며 국내의 예를 참고삼아 이상적인 도서관을 구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로서 필자는 건축학도가 아니어서 건축설계면에서는 접근이 불가하며 다만 캠퍼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괄적인 모형과 배치 디자인 (design)에 대하여 시도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2. J大学的 캠퍼스와 圖書館施設

현재 J大学은 全羅北道 J市에 소재한 국립대학교로서 재학생 1만 5천명과 교수 4백명 조교, 1백 2십명, 교직원 4백명을 수용하고 있

3) Keyes D. Metcalf., op. cit., p.303

으며 공과대학, 농과대학, 문과대학, 법정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이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등 9 개의 학부과정이 있고 본대학원과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등 3 개의 대학원과정이 있으며 그리고 학부의 66개의 학과와 대학원의 65개의 학과가 있어서 이들 학과와 교수 및 학생의 연구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圖：1) - 캠퍼스 配置圖 -

지금 이 대학의 중앙도서관은 1978년11월에 신축 개관되었으며 건물의 크기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 총 건평 2천4십평에 1천6백석의 열람좌석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시설을 학생 1인당 면적에서 보면 0.14평이 되며, 열람좌석수에 의한 총 학생수 비율은 10.6%에 불과하여 이것은 1955년에 문교부가 만든 大學設置基準令：제11조 2항, 대통령령 제3226호 (1967. 9. 27개정) -도서관의 열람좌석은 적어도 학생수의 15% 이상이어야 한다-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가 학생수 1만8천명에 열람좌석수가 4천4백석 "으로 전체 학생수의 41%, 학생 1인당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슷한 학생수를 가진 본 대학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서관의 크기면에서 볼때 서울뿐만 아니라 규모가 거의 비슷한 지방의 다른 국립대학교와 비교해 보아도 (表：1) 그 격차는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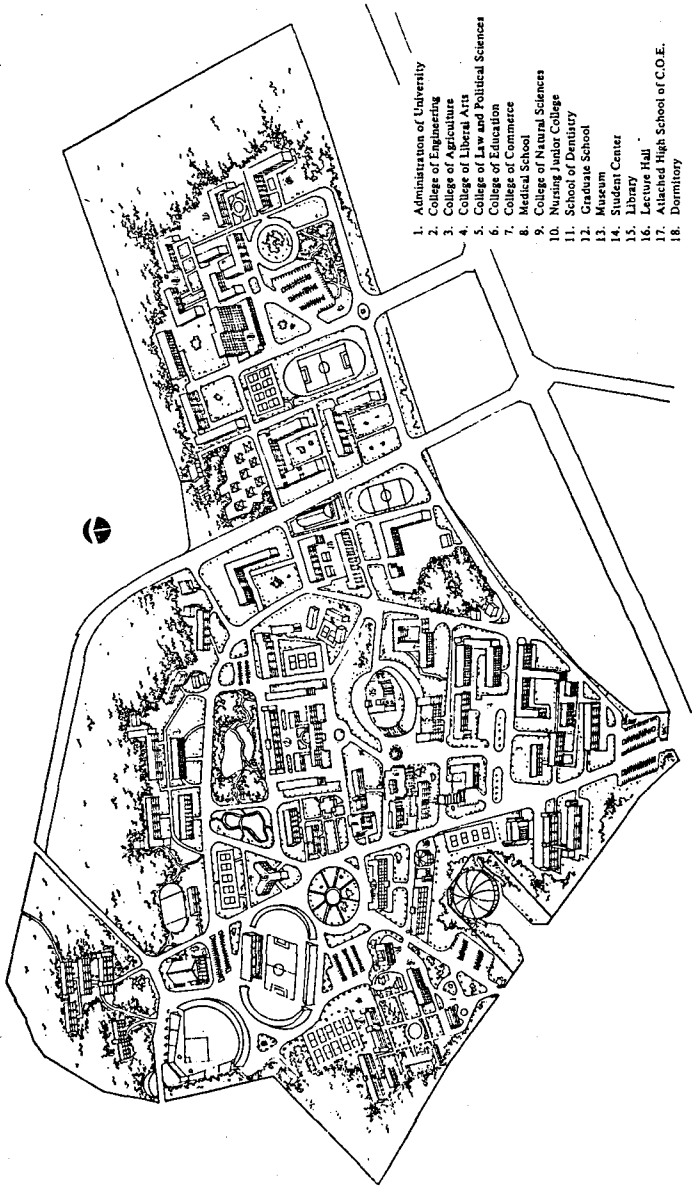
〈表：1〉 [지방] 국립대학교 도서관시설 현황

	학 생 수			도 서 관 면 적	학생 1인당면적
	대 학	대 학 원	계		
J 대학	14,320인	965인	15,265인	7,601m ²	0.49m ²
경북대	17,400	1,491	18,891	14,409	0.76
부산대	17,400	1,055	18,455	14,624	0.79
전남대	17,400	1,255	18,655	11,703	0.63
충남대	14,720	998	15,718	12,000	0.76

※ 자료：문교부발행, 국립대학교 도서관시설현황에서 발췌

4) 서울대학교도서관 안내서

(图1) 大学 캠퍼스 配置图



어지고 있다. 학생수가 거의 같은 忠南大學校가 도서관 총 면적이 1만 2천㎡인데 본 대학은 7천 6백 1㎡로서 "그것도 중앙도서관의 실면적은 6천 6백 75㎡ 밖에 되지 않아서 총 학생수에 의한 비율은 그 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로 미루어 볼진데 앞으로 본 대학은 현존하는 중앙도서관 이외에 제 2의 도서관이 필요함을 말하여 준다.

그리고 도서관의 장서면에서 보면 1981. 10. 30. 현재 동양서 8만 8천 2백 28권과 서양서 5만 6천 47권, 도합 14만 4천 2백 75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주제별 장서현황은 <表: 2> 와 같다. 그리고 외국의 학술잡지 6백 44종과 국내잡지 526종과 논문집 6천 5백 38종, 기타 15종의 국내의 신문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문교부의 大學設置基準令: 제11조 3항 - 도서관은 학생 1인에 대하여 30권이상으로 하되 1학과당 5천권 이상과 학술잡지 5종이상을 비치할것 - 에 기준한다면

<表: 2> 주제별 장서현황

류	별	장	서	수
총	류			14,656책
철	학			7,662
종	교			3,205
사	회	과	학	27,461
어			학	6,709
순	수	과	학	21,149
응	용	과	학	28,421
예			술	6,503
문			학	16,911
역			사	11,598
	계			144,275

5) 7,601㎡의 내역은 중앙도서관 6,675㎡, 공대 146.4㎡, 농대 84.8㎡, 법대 125.5㎡, 상대 126.4㎡, 이대 114㎡, 의대 216㎡, 교양학부 112.9㎡ 등 자료실 및 도서실 합계임.

6) 김원용, 「전북대학교도서관」도서관 제36권 6호 (1981. 11) p. 59~63.

도서 30권×15,000명=450,000 권

적어도 4십5만권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 상태의 도서관 서고의 수장 능력은 2십만권에 7 불과하여 지금 당장 장서기준량을 확보한다 하여도 이를 수장할 서고의 공간이 태부족하므로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3. 第2圖書館의 性格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어떠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현재의 제1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지리적·물리적 제 조건에 불편과 장애요소가 많다.

각 학문계열별에 있어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가 고려되지 않았고 대학인구의 동선처리가 등한시 되었으며 건물의 자리 또한 너무 고도의 높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수나 학생의 이용상 불편이 적지 않다.

더욱이 현 도서관의 규모나 시설면이 미흡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구상이 요청되게 되었고 또한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미리 그 성격을 부여하여 장차 발전하는 대학의 학사계획(academic plan)에 부합토록 미리 결정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 하겠다.

여기서 고찰할 제2도서관의 성격을 다음 2가지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1안: 학부도서관 (undergraduate library)

제2안: 자연과학부 또는 인문·사회과학부도서관

을 생각할 수 있다⁷⁾

이상 2개의 안은 저마다 입장일단이 있는바 이를 개술하면 다음과 같다.

7) 崔貞泰, 「韓國國立大學校圖書館의 發展策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제6집 (1979) p.109

8) 崔貞泰, 「제2도서관 건립은 이렇게; 제29회 독서주간특별기고」, 전북대학신문 제666호, (1981. 10. 2) p. 2

가. 学部專用圖書館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는 주로 그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학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을 살펴 보면 교수와 대학원생은 연구용 전문도서와 학술잡지(academic journal) 및 기타 전공서적을 많이 이용하고 학부학생은 교과서와 학습용 기본도서 그리고 교양서적등을 비교적 많이 이용한다. 이들이 이용하는 자료의 소장분포를 외국의 경우에서 보면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main library 또는 general library)에서는 그 대학의 귀중도서, 특수자료, 연구용 전문도서, 정부간행물, 비도서자료등을 중점적으로 비치하고 있어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의 상급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학부생 전용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을 캠퍼스의 중심부에 현대식으로크게 지어서⁹⁾ 여기에 교과용 학습도서, 교양도서, 기본도서, 문고도서등을 주로 소장하여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분산 이용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같은 선진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되 건축비 예산을 감안하여 특징있는 모델을 착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¹⁰⁾

본안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특히 학부학생에게 절대 부족한 열람과석을 어느정도 해결한다.

둘째, 자료를 이용성질에 따라 분류 비치하므로 이용자 편의에 도움을 준다.

셋째, 선진대학의 많은 대학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 제도는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반면에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것은

첫째, 행정가의 머리속에 도서관에 관한 옳지 못한 정보로 계획과정을 휘어 잡으려는 경향과 도서관에 대항 개념계획(concept progra

9)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offitt Library/U. C. L. A., College Library/Harvard University, Lamont Library, Hilles Library, Science Center Library/Stanford University, Meyer Memorial Library/Columbia University Sedgewick Library 등.

10) 崔貞泰, Loc, cit.

m) 을 개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¹¹⁾

둘째, 도서관 건축기금을 내 놓는 자가 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오직 세인의 이목을 끄는데만 고집한다¹²⁾

셋째, 따라서 즉흥적인 시험 공부방의 독서실만 우선 제공하면 도서관으로서는 만족하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나오기 쉽다는 점¹³⁾ 등이다.

나. 自然科学部 또는 人文·社会科学部 図書館

현재 본 대학의 기본계획(master plan)에 의하면 지금 학교 중심부의 동북부지구에 의학·치의학 캠퍼스를 건설하고 북쪽지구에는 공과대학, 농과대학 및 환경대학 등 자연계 시설을 배치하며 또한 남쪽지구에 문과대학, 사회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등 인문 사회계열을 배치하고 서쪽지역은 이과대학 및 각종 운동시설을 두며 서북쪽은 학생 기숙사와 교수가파동의 주거시설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앙도서관도 비교적 캠퍼스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보도로 10분정도이면 교내 어떤 건물까지 도달 할 수 있겠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동선의 길이를 보다 짧게 단축하고 도서관 마다의 특성을 살리기위하여 특정 분관을 설치하되 그 특성과 거리를 감안하여 다음 두가지 형태의 도서관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캠퍼스의 구도상 성질로 보아 현재의 중앙도서관을 인문 사회과학부 도서관으로 가정한다면 제 2의 도서관은 자연과학부 도서관으로 만족치 못하고 제 3의 도서관이 아울러서 요청된다.

둘째, 반대로 전자가 자연과학부 도서관이고 후자가 인문·사회과학부 도서관으로 결정지어질 경우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의 설립위치가 마땅한 곳이 없다. 그리고 이 안은 현재의 캠퍼스 수용능력에 비추어 지역적 안배에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형의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학문계열중심으로

11) Ralph E. Ellsworth, Planning manual for academic library buildings, 李炳穆譯. 大學圖書館建築計劃, 第3章 計劃失敗的原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0) p. 29~35

12) *ibid.*

13) 崔貞泰 *loc. cit.*

본 제 2 안-자연과학 또는 인문·사회과학도서관-의 착안은 현 상황에서는 아직 바람직하지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건립하는 제 2 도서관의 성격을 일단 「학부도서관」으로 명명하고 이 후 개진하는 도서관의 모델을 여기에 기초하여 논술코자 한다.

4. 配置試案

대학도서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치는 대학내의 기존 연구기관이나 대학원등과의 거리가 참작되어야 하고 산재하고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며¹⁴⁾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학문에 대한 존경의 상징이 되어야 하되 기념비적(monumental)이어서도 아니 되고 장차 확장의 여지 까지 고려하도록¹⁵⁾ 바라고 있다.

그리고 신축도서관을 위한 만족스러운 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대학시설의 성장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본교에서는 발전하는 대학에 비하여 도서관은 그 발전속도가 늦어 아직까지 위치확정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도서관을 위한 대지의 설정 부서가 문제가 되는데 벨카프는 도서관을 위한 대지를 평가하는 5가지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부지의 규모가 적당한가?

둘째, 이웃건물과의 관계와 전체 대학인구와의 관계, 교통량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도서관이 위치하는 방위는 어떠한가?

넷째, 경사진 땅은 이로운가? 아니면 불리한가?

마지막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가 그건물로 부터 생겨 날 것인가?¹⁶⁾

14) 圖書館實務便覽, II. 圖書館施設 및 設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6) p. 111.

15) 岩嶽敏生, 大學圖書館, (東京: 雄山閣, 1976)p. 177

16) Metcalf., op. cit., p. 304

본 대학의 경우 상기 조건에 의하여 도서관 위치를 설정한다면 다음 몇곳을 지적할 수 있다 <圖：2> - 第2 圖書館位置 및 動線体系圖

A지점：중앙도서관의 서쪽

B지점：중앙도서관의 동북쪽

C지점：중앙도서관의 건물을 증축

가. 分析 및 評價

① A지점

위 지점은 현 캠퍼스의 중앙지구(central zone)로서 중앙도서관과 대학본부, 제2도서관 건물이 3각 벨트를 이루고 있어 교육지원 시설의 가장 합리적인 배치에 적중하는 곳이다. 더욱이 학생회관이 가장 가까우게 위치하고 보행자의 동선처리가 적절하며 대학인구의 휴식공간과 인접해 있는 곳이며 중앙분수대가 있어 시각 및 청각의 환경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고 캠퍼스의 경관 중심지로서 미적 조경상에도 조화가 잘 이루어 지는 곳이기도 하다.

② B지점

이 지구는 현 중앙도서관과는 인접된 지역이고 캠퍼스의 중심부에서 300m 지점에 있으며 앞으로 신축되는 의·치학 캠퍼스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지점이다.

그러나 여기는 위의 삼각벨트가 무시되어 있고 시각적인 면에서도 불량경관지에 속해있는 곳이다. 더욱이 자연환경조건에 있어서 저습지라는 악조건과 대학인구의 교통체제로 보아 부적합한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C지점

이곳은 현재 중앙도서관 자리에 별도로 제2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인데 평면증축과 공간(육상) 증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도서관 위치는 원래 암석으로 된 야산이었는데 정상부위를 깎아서 건축하였으므로 지반은 매우 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 건물의 상층부에 3~4층 정도의 증축이 가능하며, 반면에 평면증축은 평면공간의 협소로 현 상태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3안의 장점으로서는 모든 도서관자료를 한곳에 모을수(centralize) 있고 건축비의 절감과 시각적인 도서관의 위용을 과시하는데 자랑삼아 올 수 있다.

그러나 이안은 동선처리의 부적절과 대학발전에 비례해서 도서관 시스템의 발전에 둔화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 結 論

이상과 같이 위 3안을 분석 검토한바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A지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벨카프의 위치선정의 5가지 평가요소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며 이 경우 도서관이 위치하는 방위(direction)는 서향분수대를 바라보게 되며 대지가 약간 경사져 있어 건축사 지하실의 채광이 유리하며, 고층에 오르면 서편의 “덕진 호수(lake)”와 멀리 호남평야를 전망할 수 있게 된다.

5. 模型과 諸般施設

가. 建物の 形態와 크기

도서관건축에 있어 먼저 대지를 선정하고 건물의 형태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그 다음 건축계획에 있어서 건물의 외부 형태나 입면을 위하여 내부의 기능이 희생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건립하는 건축물 자체가 경제적이어야 하고 능률적이고 기능에 잘 맞는 건물이어야 하되 그 위에 아름다운 건축물이면 더욱 가치가 있다 하겠다.

여기서 좀 더 요구사항을 추가한다면, 도서관의 외관과 형태는 친근감이 가야 하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며 이용하기 쉽도록 심리적인 면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금 서울대 관악캠퍼스 도서관의 중앙 통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교차지점에 위치

하여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그 옆을 끼고 있는 램프는 보행자로 하여금 그 램프를 타고 도서관으로 접근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도록 고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도서관의 건물은 너무 고층으로 하는 것 보다 저층으로 된 넓은 건물이 좋고¹⁷⁾ 어느 정도의 건축면적을 갖고 또 몇층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멜카프는 10,000Sq. ft 내외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한층으로 만 되어 있으면 기능상 만족스러운 것이다. 더 큰 도서관에서는 1, 2층의 창문만 있다면 그 아래층이 주된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고 적어도 열람자들의 75%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⁸⁾ 고 하고 있다.

본 대학에 있어서 제 2 도서관은 앞으로 발전하는 대학의 종합계획과 이웃 건물과의 크기와 높이등의 조화를 참작하여,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높거나, 낮아도 균형에 차질을 가져 온다.

현재 국내외에서 비교적 최근에 건립한 대학도서관 건물의 크기를 견주어 보건데¹⁹⁾

본교에서 건축하는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가 좋고 그 위에 장차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하되 옥상에 펜트·하우스(pent house)를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이 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동선이 비교적 짧고 에너지사용(엘리베이터등)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건물이 된다.

② 각 층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어(예, 지하에 전기 및 보일러시설, 1~2층 간접봉사 구역, 3~4층 직접봉사 구역으로 활용가능) 능률적이면서 도서관 기능에 잘 부합할 수 있다.

17) 図書館ハンドブック, 「図書館建築の設計」(東京:日本図書館協会, 1978)p. 375

18) Metcalf, op. cit, p. 305

19) 서울대학교도서관: 지하 2층, 지상 4층 / 고려대학교도서관(신관): 지하 1층 지상 4층 / 연세대학교도서관: 지하 1층, 지상 5층 / 외국어대학교도서관: 지하 1층, 지상 5층 / 원광대학교도서관: 지하 1층, 지상 5층 / 계명대학교도서관: 2하 2층, 지상 7층 / 경북대학교도서관: 지하 1층, 지상 5층 / U. C. Berkeley Libraries: 지하 1~2층, 지상 4~5층 / Harvard University Libraries: 지하 1~2층, 지상 4~5층 등.

③ 외관상 이웃건물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의 심리적 친근감을 준다.

다음, 장차 건립할 도서관의 크기면에서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본교가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의 면적현황은 7천 6백1/m²로서 학생 1인당 0.49m²이다. (表: 1)참조)

이와같은 숫자는 1977년도 이웃 일본의 국립대학도서관 평균면적 학생 1인당 1.33m²²⁰⁾의 27%에 불과하여서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을 것이다.

한편,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 할당되는 열람좌석수에 있어서도 본교는 아직 문교부의 大学設置基準令의 3분의 2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서울대학교의 4분의 1에 못미친다.

그리고 도서관이 보유할 수 있는 장서의 수장능력면에서 보면 본교는 아직도 문교부의 기준치의 절반 정도 밖에 수장할 능력이 없으며, 이를 다시 외국의 예와 비견할 때 일본의 국립대학이 1976년도 학생 1인당 평균 114.1 책을 보유²¹⁾하고 있는데 비하면 이곳의 장서 보유현황은 학생 1인당 10권정도로 일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서 위의 3가지 요인(fact)에 의한 도서관크기를 공식화 한다면

$$\begin{aligned} \text{학생 1인당 } 1.0\text{m}^2 * \times 20,000\text{명}^{**} &= 20,000\text{m}^2 \text{ (6,660평)} \\ 6,660\text{평} - 2,040\text{평}^{***} &= 4,620\text{평} \end{aligned}$$

산출근거:

- * 지방국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면적과 일본국립대학의 1인당 평균면적의 중간숫치임.
- ** 현재 재학생수는 15,000명이나 앞으로 20,000명 정도로 증가될 예상수임.
- *** 중앙도서관의 기존건물 평수임.

즉, 4천 6백 2십평이 되지만 여기에서 별도의 부속시설을 감안한

20) 栗原嘉一郎, 富江伸治, 「大学図書館の建築」現代の図書館, v. 16, n. 4 (1978. 3), p.189

21) ibid.

다면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은 적어도 5천명 규모의 도서관이라야 할 것이다.

나. 諸般施設

현대적인 도서관일수록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이용자를 위한 제반 편의시설이 다각적으로 요청된다.

「학부도서관」으로 성격지워진 본 도서관은 전반적인 대학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볼 때 적어도 다음 사항의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

(1) 一般閱覽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열람실은 주로 학부생(undergraduate student)을 위한 열람실을 준비하되 최근 외국의 예로 보면 일본의 대학은 열람좌석수의 내역을 학생용 87.7%, 교수용 4.6%, 기타 7.7%의 비율로서 할당하고 있어²²⁾ 우리도 이에 준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반열람실의 위치는 서고에 인접한 위치에 마련하고, 폐가제(closed shelves system)를 택하되 대신에 열람실내 한쪽에 사전(辭典, 事典), 편람(handbook)등 유용한 참고도서를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공되는 제반 시설은 학생의 면학분위기에 알맞도록 설계되어 내부시설이 안락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參考資料室

사전, 편람, 연감, 통계등 최근의 참고자료를 비치하되 제 1도서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자료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구분 배치하며, 서면 및 즉시응답을 위한 전문사서(reference librarian)의 전용실도 준비하여야 한다.

(3) 基本圖書室²³⁾

여기에는 기본도서, 교과서, 교양도서, 문고판 등 비교적 저렴한도서를 개가제(open shelves system)로 비치하여 이용자가 가벼운 마

22) ibid

23)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중이다.

음으로 도서관을 찾도록 유도한다.

(4) 指定圖書室

교수가 교과과정의 진도에 맞춰 특정자료를 지정 비치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용토록 하되 반개가제형(半開架制型)이 바람직하다.

(5) 自由閱覽室 또는 正誥室

대체로 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용자가 본인의 자료를 지참하고 장시간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철야독서도 가능한 개방열람실을 의미하며 위치는 공기순환이 잘되는 곳이 바람직하다.

(6) 定期刊行物室

교수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학술잡지(academic journal)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서관에 비치 보관하고, 여기서 소장할 자료는 교양내지 일반정기간행물 및 국내의 신문과 잡지류등을 중심으로 하여 비치 활용한다.

(7) 音響資料室

이용자의 정서와 휴식을 위하여 방음장치가 된 음향자료실이 필요하다. 이 실은 학생뿐 만 아니라 도서관직원을 위한 특별실을 구분 마련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피로회복을 위한 장치를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과의 상호접촉과 대화가 이어지는「대화의 광장」이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8) 自由討論室 및 세미나室

5~6인 내지 9~10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소형의 방을 수개 준비하여 학습평가 및 자유토론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하며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며, 별도의 세미나실은 특정주제에 의한 회의와 세미나를 위해서 방음벽과 암실 시설을 갖춘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9) 吸煙室

도서관내에서 흡연은 원칙적으로 통제를 하되 별도로 각 열람실 주위에 수개의 흡연실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의 혼탁과 화재의 위험을 미리 예방토록 한다.

(10) 新刊圖書案内室

신간도서의 안내를 위해서 별도의 방이 있으면 유용하다. 그러나 별

실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 부근의 홀(hall)이나 라운지등에 칸막이를 하여서 공간을 만들어 주며, 북케이스(book case)나 북자켓(book jacket)등으로 신간도서의 안내도 하며 문헌정보의 교환과 이용자들의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면 도서관 이용의 매력적인 유인 방법이 될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J대학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지방의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학술연구와 면학에 온 정열을 쏟고 있으며, 대학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을 한 지구(zone)로 종합화하고 캠퍼스도 학문 계열별로 그룹핑(grouping)하며, 도서관에 대해서도 현존 중앙도서관 이외에 제 2도서관의 신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먼저 그 필요성과 성격을 규명해 보고, 캠퍼스내에서 제 2도서관의 적절한 배치계획과 건축물의 모형과 크기의 규모등에 대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고 기능에 알맞는 건물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되는 제반 시설물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장차 발전하는 대학에 손색없는 교육지원시설이 되도록 구상해 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제 2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 둘째, 건립하는 도서관의 성격을 학부도서관으로 명명하고 건물은 이에 맞춰 건설한다.
- 셋째, 제 2도서관의 캠퍼스 배치는 A지점(圖: 2)을 정하여 중앙도서관과 대학본부를 잇는 삼각벨트(delta belt)를 형성한다.
- 넷째, 건물의 크기는 5천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4층정도의 건물로 한다.
- 다섯째, 이용자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제반 시설물로서는 적어도 일반열람실, 참고자료실, 기본도서실, 지정도서실, 자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음향자료실, 자유토론실, 흡연실, 신간도서안내실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參考文獻〉

- 1) 한국도서관협회, 公共圖書館의 施設, 서울: 한국도협, 1966.
- 2) 한국도서관협회, 學校圖書館의 施設, 서울: 한국도협, 1965
- 3) 한국도서관협회, 圖書館實務便覽, II.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 서울: 한국도협, 1966, p. 81~156
- 4) 國會事務處, 國會圖書館新築基本計劃基準, 서울: 國會事務處, 1980.
- 5) 國會事務處, 國會圖書館新築基本計劃基準參考資料集, 서울: 國會事務處, 1980.
- 6) 崔貞泰, 韓國國立大學圖書館의 發展策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제 6집 (1979) p. 105~136
- 7) 崔貞泰, “제 2 도서관 건립은 이렇게”; 제27회 독서주간 특별기고, 전북대학학신문 제666호 (1981. 10. 2)
- 8) 朴相東, 大學圖書館建築計劃에 관한 연구,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2.
- 9) 圖書館建築圖集'79,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9
- 10) 岩猿敏生, 大學圖書館: 9. 大學圖書館建築, 東京: 雄山閣, 1976, P. 165~180.
- 11) Hadley, Chalmers, Library Buildings, 今澤茲海訳, 圖書館建築, 東京: 風間書房, 1950
- 12) 栗原嘉一郎 外, 北米大學圖書館의 캠퍼스における 配置計劃一事例研究, 大學圖書館研究 NO. 13 (1978) P.1~15
- 13) 栗原嘉一郎, 富江伸治, 大學圖書館建築10年, 現代의 圖書館 v. 16, n. 4 (1978, 3) P.186~205
- 14) 圖書館ハンドブック 第4版 圖書館建築의 設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8
- 15) Gelfand, M. A.,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李炳穆譯, 大學圖書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166~190
- 16) Ellsworth, Ralph Eugene, Planning Manual for Academic Library Buildings, 李炳穆譯, 大學圖書館建築計劃,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0.
- 17) Metcalf, Keyes D.,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 New York: McGraw-hill, 1965.
- 1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ies: Building for the Future, Chicago: A. L. A., 1967.
- 19) Paddock, James A., Library: Program and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bridge: Dober, Paddock, Upton and Associates, Inc., 1972.
- 20) Martin, Louis E., The Librar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Statement, Washington, D. C., 1972.

ABSTRACT

A TENTATIVE PLAN ON AN ARRANGEMENT AND A MODEL OF UNIVERSITY LIBRARY BUILDING

Jung-tai Choe
Dept. of Library Science
Jeonbug Natl. Universit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 tentative plan on an arrangement and a model of university library building which is the 2nd (branch) library of J. National University in North Jeonla province.

At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built new library building for undergraduate student in J. National University.

Secondary, I studied on the site problems, a model, size and an arrangement planning in this campus.

Finally, at least, to install modernized facilities for this library have to require as follows:

1. General Reading Room
2. Reference Room
3. Basic Reading Room
4. Free Reading Room
5. Reserved Room
6. Periodical Room
7. Seminar and Group Study Room
8. Browsing Room
9. Smoking Room
10. Display Hall